



My name is Sr. Dorothy Dolan. I grew up in Hazelwood, was a parishioner of St. Stephen Parish, and attended St. Stephen School. When I was in school most every Catholic child was expected to attend a Catholic School. Therefore, it was not unusual to have anywhere from 45 to 65 or more students in a class. But we all somehow seemed to learn. I had the good fortune to be educated by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through eight years of grade school, and then another four years at Elizabeth Seton High School.



When I graduated from Elizabeth Seton, I enrolled at Duquesne University in Pittsburgh high up on the bluff. After one summer at Duquesne, I got a call from Sr. Mary Agnes Schieldkamp asking if I would be interested in being part of Duquesne University's teachers' program and teaching at St. Mary of the Mount Elementary School at the same time. I was thrilled. So for six years I taught, was educated, and was a camp counselor during summers. During that time my father passed away, all my sisters had married, so I felt I should stay home with my mother, continue my education, and remain a teac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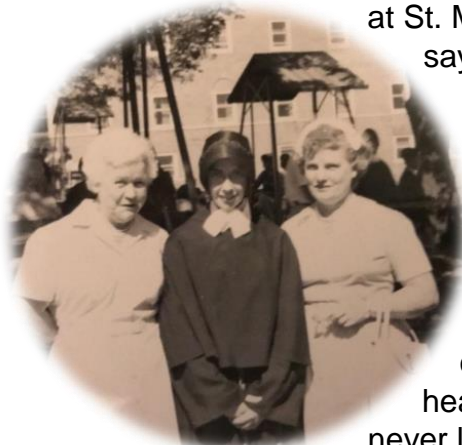
at St. Mary of the Mount. Well as they

say: God has a way of changing our plans. He certainly changed

mine. One day while visiting Sr. Cornelia O'Friel, she asked me,

"Did you ever think of entering the Sisters of Charity?" My answer was quick, abrupt, and final – "NO I did not, and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But I did think about it a lot that night. Next morning I said to my mother, "I'm going to enter the convent." She replied "I wondered when I would

hear you say that." That was 61 years ago, and I never looked back.



My first mission, as a postulant, was St. Michael School in Pitcairn. The Superior and principal was Sr. Agnes Louise Green, who was my first grade teacher. And so began my teaching career as a Sister of Charity. Teaching took me to Altoona, Greensburg, Bethesda, and Pittsburgh. Later I became a principal in several dioceses. For eight years I served as treasurer at three schools in Pittsburgh. And then was appointed the Treasurer of the Congregation for fourteen years.



In 2009 I began a whole new ministry. For ten years I served at Rendu Services. The Daughters of Charity began this ministry in 2000 in Fayette County, one of the poorest counties in Pennsylvania. They served the poor on many levels.

It was a pleasure to serve with the Daughters and the Sisters of Charity of Nazareth in this work until Rendu closed in 2010. Now I'm back at DePaul Center working in the Office of Human Resources. Again a new experience for me. I'm learning, enjoying, and hope to stay for a while. It has been a wonderful journey living and serving as one of Mother Seton's daughters.

Thank you for your dedication and contributions to our ministry. Your service and commitment were vital to our program.

Sr. Dorothy Dolan, SC

RENDU SERVICES, INC.
2000 - 2018





안녕하세요. 도로시 돌란 수녀(Sr. Dorothy Dolan)입니다. 저는 헤이즐 우드(Hazelwood)에서 자라 성 스테파노 본당(St. Stephen Parish) 신자로 본당의 성 스테파노 학교에 다녔습니다. 저의 학창 시절에는 거의 모든 가톨릭 신자 아이들은 가톨릭 학교에 다녔지요. 그래서 한 반에 45명에서 65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한 반에 그렇게 많은 학생이 있었지만 어떻게든 모두가 함께 배웠지요. 초등학교에서 8년, 그리고 엘리사벳 씨튼 고등학교(Elizabeth Seton High School)에서 4년을 우리 사랑의 씨튼 수녀님들에게서 배운 것이 저에게 큰 행운이었어요.



엘리사벳 씨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피츠버그의 모농가헬라 강(the Monongahela River) 위 언덕에 있는 듀케인 대학교(Duquesne University)에

입학했습니다. 듀케인 대학에서 여름학기를 마치고 난 후 메리 아그네스 쉴드캠프 수녀님(Sr. Mary Agnes Schieldkamp)이 저를 불러 듀케인 대학의 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세인트 메리 오브 더 마운트 초등학교(St. Mary of the Mount Elementary School)에서 가르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셨지요. 저는 정말 신이 났어요! 6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저도 교육을 받고 여름에는 캠프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자매들이 모두 결혼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계속 공부를 해서 세인트 메리 오브 마운트 학교에 교사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계획을 바꾸신다.'라는 말이 있지요. 하느님께서는 제가 세운 계획을 바꾸셨어요. 어느 날, 코넬리아 오프리엘 수녀님(Sr. Cornelia O'Friel)을 방문했는데 수녀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랑의 수녀회에 들어올 생각을 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얼른 분명하게 답했지요. "아니요! 수녀님, 입회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 밤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수녀원에 갈래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언제 그 말을 할지 궁금했단다." 벌써 61년 전의 일이지요. 그 후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저의 첫 번째 사도직은 청원자 때 파견 받은 피트케언에 있는 성 미카엘 학교(St. Michael School, Pitcairn)였습니다. 그때 학교의 교장 수녀님이자 원장 수녀님은 우연히도 저의 1학년때

선생님이었던 아그네스 루이즈 그린 수녀님(Sr. Agnes Louise Green)이었어요. 사랑의 수녀로서 저의 교직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알투나, 그린스버그, 베텔스다, 피츠버그에서 교직생활을 했고 후에는 알투나, 그린스버그, 피츠버그 교구에 있는 학교에서 교장을 맡았습니다. 8년 동안 피츠버그에 있는 세 곳의 학교에서 회계를 맡았고 14년 동안 수도회 회계를 담당했습니다.



2009년, 저는 온전히 새로운 사도직을 시작하여 10년 동안 랑두 서비스(Rendu Services)에서 일했어요. 사랑의 딸회(Daughters of Charity)가 지난 2000년에 펜실베이니아주의 가장 가난한 지역 중의 하나인 파예트 카운티(Fayette County)에서 이 사도직을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딸들은 여러 가지 차원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했지요. 2010년 랑두 서비스가 문을 닫을 때까지 사랑의 딸 수녀님들과 나자렛 사랑의 수녀님들(Sisters of Charity of Nazareth)과 함께 이 사도직을 함께

한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지금은 드폴 센터(DePaul Center)로 돌아와 직원 인사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인 이 일을 배우고 즐기며 조금 더 오래 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더 씨튼의 딸로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멋진 여정이지요.

Thank you for your dedication and contributions to our ministry. Your service and commitment were vital to our program.

Sr. Dorothy Dolan, SC

RENDU SERVICES, INC.
2000 - 2018

